

1910 <사건, 진리>

Q1 **알랭 바디우** : 정치 =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
좋은 지도자 뽑고 + 사회 구조 변화
사건에서 진리가 만들어짐

Q2 사건 - 미리 계획 X, 예측 X. 그러나 사회 구조를 더한다.
- 사회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, 사회 구조 변화 촉발점
ex) 피리모운 → <보기에 등장.

Q3 사건이 발생하면 → 이름이 붙어지고 → 사회에 환인으로 남음
답색 : 개인/집단이 사건 ↔ 사회 요소들 간의 관련성 검토.
어떤 의도 없이, '충실성'을 기준으로 판단.

Q4 If 충실하면 → 진리를 이름
진리 ≠ fact. 그냥 충실한 요소들의 집합체

Q5 **주체** : 진리를 만드는, 개인/집단의 행위, 발인 중 충실한 요소들.
(개인/집단 전체 ≠ 주체)

Q6 사건 : 진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, 그러나 사건 ≠ 진리
사회 구조 변화는 진리에서 나옴.

용기 중요 ① 진리를 좇는 용기

② 요소들의 분류 작업을 이어나갈 용기

미래 말고, 과거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함.

1910 <연관성 분석>

91 연관성 분석: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, 연관 규칙 세움.

연관 규칙 = X를 사면(조건) \rightarrow Y를 산다(결과)

92 연관성 척도 - 발생 빈도를 기본으로 하는 지지도/신뢰도/향상도

① 지지도 \rightarrow (X, Y 동시에 구매할 거래) / 전체 거래

$$X \rightarrow Y \text{ 지지도} = Y \rightarrow X \text{ 지지도}$$

93 ② 신뢰도: 조건이 일어날 때 \rightarrow 결과가 일어날 확률

$$(X, Y \text{ 동시에 구매할 거래}) / X \text{ 거래}$$

$$X \rightarrow Y \text{ 신뢰도} \neq Y \rightarrow X \text{ 신뢰도}$$

94 ③ 향상도: 조건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확률 향상 정도.

$$\frac{\text{신뢰도}}{\text{기대신뢰도}} \quad \text{기대신뢰도} = Y \text{ 거래} / \text{전체 거래}$$

향상도 = 1: 독립 > 1: 연관 < 1: 음의 연관.

95 연관성 분석 장점: 결과가 명확, 규칙이 마케팅에 적용하기 좋음.

P[단점: 분석 품목 많아지면 \rightarrow 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]

S[최소지지도 가지치기]

① 지지도 낮으면 \rightarrow 삭제

② 하위 품목 \rightarrow 상위로 일반화

96 한편, S[시간을 고려한 시차 연관성 분석]

① 시차 발생 시간 이-순서 필요

② 동일한 분석 대상에서 발생한 건지 시별 정보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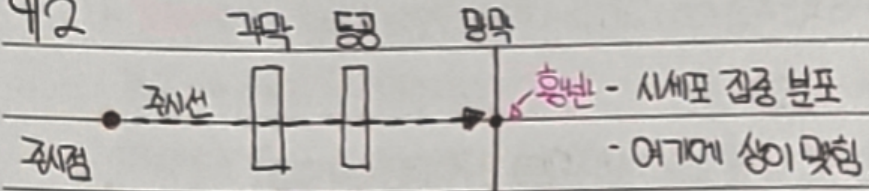
1910 <복시>

Q1 시야 : 시선을 한곳에 둘 때 한 번에 보는 범위



두는 시야가 겹치는 부분만 또렷이 보임.

Q2



◦ 움직일 때는 : 눈운동에 상이 홍반에 맺힘

눈운동 : 4 굵은, 2 낮은 눈알 이동/회전

Q3 폭주 운동 : 각 눈의 좌시점과 우시점의 모음 (필수)

왜? 오른쪽 눈 / 왼쪽 눈 사이 약 6cm 간격.

폭주량 → 폭주운동하는 양. 미터가 (1/물체거리) 이용해 나타냄. (단위 MA)

P: [거리, 사람마다 둥근격이 다름]

S: [실제 폭주량 (Δ 폭주운동량) = 미터가 (MA) × 둥근거리 (m)]

Q4 P2 : 눈운동에 이상이 생기면 편위 발생 (좌시 OUT!!)

∴ 복시 [성인적 복시 → 피로할 때
 어린이 복시 → 눈안정 이상]

Q5 <세부정보 판단>

복시 [비교적 복시 → 좌시점의 큰 쪽으로 편위
 시야가 좁아짐
 교차성 복시 → 좌시점의 큰 쪽으로 편위
 시야가 넓어짐]

EX) 오른쪽 눈 비교적 복시 → 좌시점의 실제보다 큰 쪽

∴ 오른쪽 (큰 쪽)에 물체가 있다고 느낌.

Q6 생리적 복시 → S1 [편위가 발생한 눈거리의 수식]

사시성 복시 → S2 [프로그램 사용: 빛의 진행 방향 비공]

실제 편위 → $\frac{\text{거리}(\text{cm})}{\text{물체}(\text{cm}) - 1} = \text{거리}(\delta) - \text{단위} \Delta$

편위 단위 → 1m 당 1cm의 편위

편위 단위 → 편위 단위를 기준으로 편위 발생 → 복시 거리